

[종합]

신당 14일 '원샷 경선'

지도부 "8개 지역 동시 실시" ... 鄭 후보측 수용 여부 주목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순회 경선을 중단하고 남은 8개 지역경선과 모바일 투표를 오는 14일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6면>

대통합 민주신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손학규·이해찬 후보의 '동원경선' 의혹 제기 때 따른 '원샷 경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동영 후보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합 민주신당 오종일 대표는 이

날 오전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국민경선위원회에 잇달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국민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과 믿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순회경선을 중단하고 14일 남은 전지역의 동시 투표를 진행하겠다"며 "또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취지를 받아들여 무더기 부정대리 접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어 "향후 국민경선 과정에서 조직동원 등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 수사와 무관하게 당 차원에서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며 "후보 진영에 대한 책임은 물론 나아가 제명 및 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포함,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일과 7일에 예정된 대전·충남·전북 경선과 경기·인천 경선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서울·대구·경북지역 경선과 함께 치러지며 개표는 15일에 예정된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실시

된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원 샷 경선'에 대해 손학규, 이해찬 후보 측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동영 후보는 "손·이 후보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내간 경선 과정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 후보 측의 양형일 정책본부장은 "승리가 어려운 2등, 3등 후보가 관을 깨겠다는 압력에 지도부가 굴기·인전 경선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서울·대구·경북지역 경선과 함께 치러지며 개표는 15일에 예정된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실시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초헌관) 등 제관들이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단군성전에서 국조단군대제를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곳곳 개천절 기념행사

단기 4339주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천절인 3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공원에 단군성전 옆 원형광장에서 광주 국조송모회와 광주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조단군대제를 올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제사를 올렸으며, 광주 시립국극단의 남도창과 광주 국악원창년단원들의 단무도 공연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광주 국조송모회 영홍섭 이사장은 "올해 개천절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내년 개천절에는 북한 동포와 함께 단군대제를 올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무등산 천제단에서도 광주 민화회 주최로 개천대제가 열려 민화회와 동구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제사를 지냈다. 또한 진도와 해남, 곡성, 화순 등의 단군성전에서도 단군대제가 열려 개천절의 의미를 기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검찰, '명의도용' 구의원 집 압수수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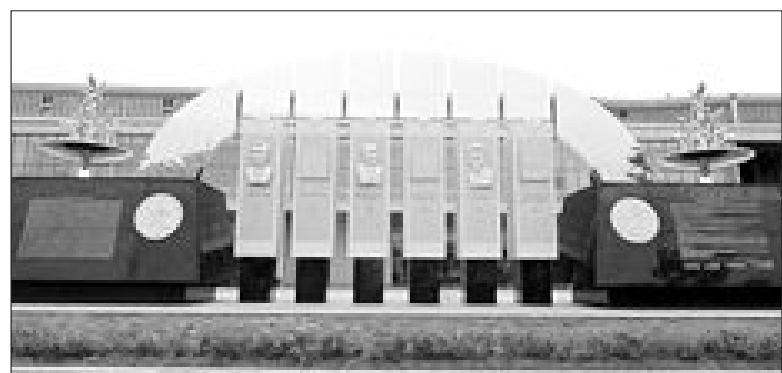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의 노무현 대통령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종로구의원 정모(45·여)씨의 집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무더기로 선거인단 등록을 했던 장소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PC방과 경선 선거인단 등록 인터넷 관리업체 P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아들 박모(19)군, 박씨의 여자친구 이모(19)양

등과 함께 8월 24일 새벽 1~3시에 창신동 PC방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선거인단 등록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박군, 이양과 이들의 친구 장모(19)군 등 대학생 3명에게 열린우리당 당원명부를 넘겨준 뒤 8월 23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송인동의 한 PC방에서 98명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인단 등록을 실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오늘 DJ컨벤션센터서 조형물 제막

김대중 前대통령 참석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기념 조형물(사진) 제막식이 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앞에 설치된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기념 조형물은 지난 해 이곳에서 열린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광주의 평화·인권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대리석과 황동 등으로 구성된 이 조형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모이러 코리안 맥과이어(영국), 슈린 에바디(이란), 왕가리 마타이(케냐) 등 광주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5명의 부조와 참가 수상단체(7개)의 엠블럼이 부착돼 있다. 참가단체는

국제평화국,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케이커 봉사위원회,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의학지기구, 퍼그위시회의 등이다.

또한 아치형 구조물과 하늘을 향해 나는 비둘기 모형이 부착돼 세계평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과 광주 정상회의 선언문이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새겨져 있다. 전국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길이 18.5m·너비 4.5m·높이 6.1m의 크기이며, 디자인은 조순대 김인경 교수가 맡았다.

제막식은 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기와의 빛) 점등식 직후, 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6자회담 공동문건 타결

중 외교부 부부장 "美, 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약속 지킬 것"

북핵 6자회담 공동문건이 채택됐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오후 참가국들의 승인을 거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로 명명된 합의문서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5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합의문서에서 비핵화 2단계의 핵심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연말(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불능화 작업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2주내 북한에 전문가 그룹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은 또 올 연말까지 2·13협약에 따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 북한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공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안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미안마 군사정권' 비난 성명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가 5·18과 비유되고 있는 미안마 사태와 관련해 미안마 군사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대와 교내 민주인권평화센터는 3일 성명을 내고 "미안마 군정은 국민의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탄압과 학살로 잠재우려는 시도를 중단하

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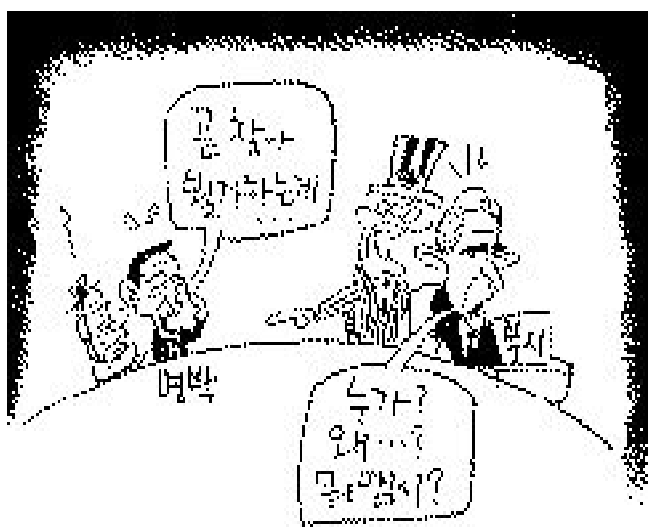
전남대는 "지금의 민주화 시위는 현 군정이 자행한 1988년 학살 등 그동안 폭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보이는 정당한 항거"라며 "미안마 군정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가 피로 새긴 교훈을 깨닫고 유혈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전남대는 또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미안마 군정이 학살을 중지하고 민주화를 추진토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해야 하며 5·18 민주항쟁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한국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 미안마 민주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망신 당하는 것도 간단하구나

분 실

약속어음
No. 자기03619691
금 액 금41,942,700원
발행일 2004년 3월 12일
발행인 (주)남해고속
지급일 2004년 4월 26일
지급처 하나은행 목포지점
최후소지인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상기 어음을 분실공고함.

약속어음
No. 03481625
금 액 금3,668,500원
발행일 2003년 9월 4일
발행인 (주)남해고속
지급일 2003년 11월 4일
지급처 하나은행 목포지점
최후소지인 쌍용증권
상기 어음을 분실공고함.

공 고

1. 압할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동 2가
신호전 미용 배관공사
(2007)
* 공사내용 변경사항 있음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동 2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2. 압할 참가 자격
가. 업종: 전기공사, 배관공사, 전기기공
신재생에너지 등 특 전문기업
나. 지역: 광주, 전남 소재업체
(의뢰공고일 전일 현재)
3. 입찰방법: 총액인찰 최저가 입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중립적자금시스템(나라장터)의 남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급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5. 등록일 : 2007. 10. 09(화) 12:00
6. 현상일: 2007. 10. 10(수) 14:00
7. 장소: 광주광역시 중앙동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TEL. 062-474-2051)
8. 견적서 제출일시: 2007. 10. 12(금) 14:00
* 모든 일정 및 시간을 아랍시 동쪽 일정을 표기
각주 및 재첨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고시원 매매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입니다.

● 5층건물 매대가 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가 7억5천 (용자 3억5천 포함)
● 6층건물 매대가 8억5천 (용자 4억 포함)
● 7층건물 매대가 9억5천 (용자 3억9천 포함)
● 4층 6층건물 매대가 20억 (용자 6억7천 포함)

♣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오

H.P: 011-604-5239

건설입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 건설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분할 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인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 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 (062) 226-6300
FAX: (062) 943-2244

급 매

국도변

♣ 나주·남평역 인근
♣ 남향투자 최적지
♣ 22,353㎡ (7,000평)
♣ 주인직접 (평당3만)

016-249-8656

누구나 선택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흥 녹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발코니에서 바라 본 실제전경

거실 배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곳 일조량이 어느 곳보다 많은 곳
주방 세련된 주방가구 여러가지 옵션에 가능하며 동선에 맞게 빌트인된 가스오븐렌지
침실 아늑한 숲에 둘러싸인 탁 트인 공간
현관 대형캐비닛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

작은방 자녀들을 배려한 공간
발코니 별도의 화장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
화장실 공용 및 부부욕실로 구분
장식용 문비어 장식대에 우아함을 더한 것을 강조하는 곳

중형 조선포 계약체결로 인한 프리미엄 상승효과

2층	88,000,000	(근린생활시설)
3층	90,000,000	
4~13층	92,000,000	

구분 면적
전용면적 84.56㎡ 25.6평
서비스면적 29.16㎡ 8.82평
공용면적 29.575㎡ 8.94평
공급면적 143.295㎡ 43.34평
대지 26.45㎡ 8평

저희 대현산업개발에서는 **선공사 후분양**으로 안전하게 소비자를 모십니다.

34평 48세대 분양 문의 061-843-7888 / 017-615-0062
문의 017-635-3468 / 011-645-1531

☐ 시행사: **DAH (주)대현산업개발**
☐ 시공사: **남우종합건설(주)**